

“복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 산정지구, 땅거래면적 1년새 3~4배... 곳곳에 투기 정황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인근 부동산에 개발계획안이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공무원들의 토지거래와 정부 발표 전 여러건의 집중 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사업을 주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사는 광주시 권한 밖이고, 개발 부지 경

계선과 인접한 땅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도 없어 수박 겉핥기식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2·4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지난 달 24일, 광명 시흥, 부산 대저와 함께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 발표 전 지난해 9·11월께 매매계약 잇따라
 광주시 공직자 전수조사... 일부 공무원 거래 의혹
 목욕 식재·땅 높이기 작업·주택 개량 등 이어져
 사업주도 LH는 '권한 밖'... 주변땅 거래 조사 한계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 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에 이어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최종 완공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호남관문인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 뿐 아니라 무안과 나주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하남·진곡산단, 하남·수원지구와도 가까워 주택 수요가 높다 보니 정부 발표를 전후로 투기성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빚그린산단 근로자 주거지 개발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최근 3년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고, 거래면적도 1년 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매매계약이 집중됐고, 거래가도 토지면적에 따라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6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발표 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곳은 날씨에도 어린 묘목이 곳곳에 심어지고 있어 "보상을 노린 식재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토 작업과 주택리모델링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생선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땅주인이나 집주인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광주시는 광산구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3920여 건의 토지거래 내역과 매매자 명부를 건네받아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자 명단과 일부 공직자들의 실명이 겹쳐진 위 여부와 거래 배경 등을 파악중이다. 시는 또 정부 발표 1~2주 전,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사업주체인 LH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각서를 쓴 뒤 산정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 보고받은 점에 주목, 이들과 주변 친인척의 개입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이 계획적으로 차명거래를 했거나 지능적으로 투기성 지분조개를 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을 주도하는 LH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타 기관'이라는 이유로 광주시의 조사 권한 밖이고, 개발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토지에서 주로 이뤄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 범위 등 명확한 지침도 없어 조사가 겉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매매 계약자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확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며 "위나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소상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AZ백신, 만 65세 이상 고령층 사용 권고... 이달 중 37만명 접종

예방접종위, 해외자료 검토·심의
 AZ백신 접종 주기, 8→10주 변경
 접종 후 감염엔 격리해제 후 접종

고령층 대상 효능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도 접종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사용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등 해외 자료 참고... 3월 중 고령층 접

종 시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달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고령자 참여자가 660명(7.4%)으로 부족해, 미국에서 추가 임상 자료가 나오는 3월말~4월초로 연기됐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백신 미접종군과 비교했을 때 70세 이상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35일 후 73% 백신 예방효과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위험은 37% 감소했다. 화이자의 경우 백신 1차 접종 28~34일 후 예방효과가 61~70%(70세 이상 61%, 80세 이상 70%), 입원 위험은 43% 감소했다. 스코틀랜드에선 입원 예방효과가 두 백신 모두 접종 28~34일에 최고에 도달했고 효과

는 화이자 백신 최대 8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대 94%로 확인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두 백신 접종자들의 입원 예방 효과는 18~64세 85%, 65~79세 79%, 80세 이상 81%로 고령층과 그 이하 연령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백신별로 구분돼 있지 않지만 스코틀랜드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비율이 높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종사자 약 37만 6000명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보관 온도가 2~8도여서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필요한 화

이자 백신보다 운송이 용이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접종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약 7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Z백신 접종 주기 8주→10주... 감염되면 격리해제 후 접종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차 접종은 실시하되 격리해제 된 이후에 접종을 하도록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인당 일정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이 권장된다. 지난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 받은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6명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경우 2차 접종을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지난 10일 기준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총 571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0건이다. 49건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1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사례다. 아울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행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외출입이 잦으면서도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경

코로나19 양해 극복해오!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화남2지구 상가 상인회